

# 과제물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

—과제물제도가 본대학의 면학분위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배종욱 · 신한원 · 박한일 · 김윤해

## A Study of the Assignment System for Improving Academic Atmosphere

*Bae Jonguk · Shin Hanwon · Park Hanil · Kim Yunhae*

### <目 次>

- |                |                           |
|----------------|---------------------------|
| 1. 서론          | 3.3 과제물제도에 대한 학생들의<br>호응도 |
| 2. 연구방법        | 3.4 과제물제도에 대한 교수들의<br>호응도 |
| 3. 연구의 결과 및 분석 | 4. 결론                     |
| 3.1 제도의 운영실적   |                           |
| 3.2 학생의 면학태도   |                           |

### Abstract

It is an essential element of university education to have the students submit reports of the assignments, in creating an academic atmosphere and in cultivating problem-solving ability. But the circumstances of our country's university education are not so good. There are too many students compared with the faculties and facilities of the university. Therefo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give marks and return the student's report. From this fact an effective plan for the assignment system is needed for a better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per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assignment system to Korea Maritime University, since 1986 academic year to meet the above mentioned needs. The records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were examined. And a couple sets of question

naires to students of whole departments and a single set of questionnaires to professors were conducted and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e academic atmosphere is correlative with the several relevant parameters. But the simple operation of such parameters can not answer the expecta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academic atmospher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desirable to endeavour to gradually raise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students which corresponds with the bias of parameter, in the sense of overall and long term controll over such relevant parameters.

## 1. 서 론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진전하여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할 인적자원을 공급해야하는 대학교육의 발전은 중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교육은 일방적 주입식교육이 아니며 교수의 끊임없는 연구와 심오한 학문을 바탕으로한 주도면밀한 지도 아래 주어진 문제들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결해나감으로써 폭넓은 지식과 학문에 접하며 스스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형편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데 대응하여 대학의 수용능력 확장이 원만하게 되따르지 못하였고 한편 이에 대응하여 양적 성장에 주력하여 1차적 선결과제인 양적요구에 응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의 수용능력 그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주입식 일변도의 교육을 해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한국해양대학에서는 대량교육의 현실적요구와 자주적 면학분위기의 조성이라는 모순을 타개해보려는 시도로서 1986년 3월부터 본대학 특유의 과제물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의 기본적 형식은 많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교수가 모두 점검, 채점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대학원생 및 우수한 4학년들을 과제물처리 조교(Teaching assistant, T. A)로 선발한 후 4학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대학원생 T.A들이, 그리고 1, 2, 3학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4학년 T.A들이 점검함으로써 교수의 부담을 해결함과 동시에 T.A로서 수고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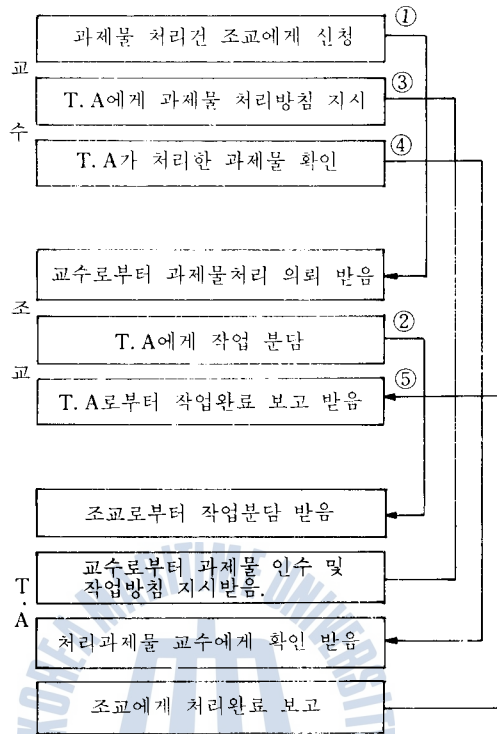
이러한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서 본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제도운영

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과 애로점을 발견, 제거하고 제도의 부분적 수정을 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평가 연구로서 본 연구가 병행하여 진행되어 왔다. 1987년 1월에 이 평가의 중간보고가 본 대학 교수연수회에서 발표되었고 본 연구는 그 종결보고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A들의 과제물 처리기록을 자료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제도운영 실적을 조사검토하였으며 전학년, 전계열학과를 대상으로한, 중간보고와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과 전 T.A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본 대학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과제물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의식변전을 추론해봄으로써 대학당국과 교수의 지도방향을 지표로 제공하며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본 대학 전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교수호응도와 제도의 활용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본 제도가 더욱 긍정적 시각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의 양적성장에 편중된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그 발전시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방법

본 제도를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2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적 수정을 행하였다. 1986년 1학기 동안 각 학과에 배정된 T.A들은 각학과 사무실에 수시 방문하게 하고 과제물처리를 필요로 하는 교수는 학과사무실에 연락을 하도록 하여 과제물을 전달하는 평이한 방법으로 본 제도를 시범시행하였다. 배정된 T.A 인원수는 학생수가 많은 상계열학과에 대학원생 3명, 4학년 8명씩이며 기타 학과는 모두 각학과에 대학원생 1명, 4학년 2명씩이었다. 그러나 T.A들이 학과사무실에 수시방문을 잘하지 않고 넓은 교정에서 T.A를 호출하는 것도 여의치않아 과제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학과사무실에 쌓이게 되고 처리된 과제물을 교수에게 회송하는 일도 원활치 못하여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성실히 학과사무실에 연락하는 학생들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한 제1차 부분적 제도수정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가 학과조교를 통하여 T.A를 호출하고 T.A는 과제물 처리업무의 흐름을 따라 전표를 작성제출하며 최종적으로는 학과사무실에 결과를 보고하는 전표를 남겨서 각 T.A별 업무실적과 각 교수별 활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림 1) 과제물처리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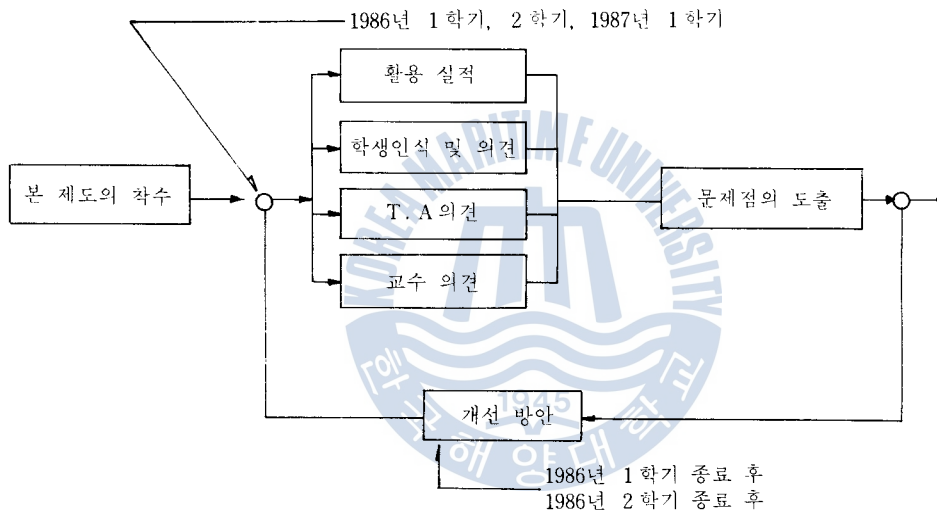
- ② 과제물처리 분담증(A) : 학과보관, 과제물 수령증(B), 과제물 확인증(C), 학생수령
- ③ 과제물 수령증(B) : T.A→교수보관
- ④ 과제물 확인증(C) : 교수확인→T.A
- ⑤ 과제물 확인증(C) : T.A→조교

1986년 2학기 동안 수정된 과제물제도를 시행한 후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제 1보에서 보고한 내용으로서 과제물처리 업무량의 과별격차가 심하다는 점, T.A들의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및 T.A가 방문할 교수의 부재중으로 인해 만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7년 1학기에는 제 2차의 부분적 제도수정을 가하여 시행하였는데 전학기 동안의 각교수별 T.A활용실적을 통계하여 그 수요에 대응한 인원수의 전담 T.A를 각교수에게 배정하고 T.A들로 하여금 담당교수를 규칙적으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위의 3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완화하도록 시도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T.A업무의 최종결과는 학과사무실에 보고되도록 하였다. 제 1차 및 2차의 제도수정에서 총 T.A인원수에는 변경이 없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그림 2에 나타난 개략도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병행하여 학과사

무실에 보관되는 기록물로부터 T.A활용실적,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의 학생들의 의식 및 의견, T.A들의 의견 그리고 각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학기에 제도수정을 가하는 시행착오법이라 하겠다.

표 1에서는 표본집단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학생의 경우,  $n=767$  중 사용가능한 응답수 765개였으며 T.A의 경우  $n=20$ 으로 하였고 교수의 경우 배포한 70매의 질문지 중 53매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n=53$ 으로 하였다. 그리고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SPSS프로그램 패키지에 의하여 자료처리를 행하였다.



(그림 2) 연구방법의 개략도

(표 1) 표본집단

학 생	'86년 2학기		'87년 1학기	
	계	%	계	%
상 선 제 열	134	29.4	458	59.7
사 회 제 열	127	27.8	135	17.6
이 공 제 열	195	42.7	127	22.3
누 락(무응답)			2	0.3
계	456	100.0	767	100.0

1 학 년	168	36.8	86	11.2
2 학 년	173	37.9	189	24.6
3 학 년	98	21.5	164	21.4
4 학 년	16	3.5	316	41.2
누 락(무응답)	1	0.2	2	0.2
계	456	100.0	767	100.0

교 수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상 선 계 열			22	41.5
이 공 계 열			13	24.5
사 회 계 열			6	11.3
교 양 과정 학과			12	22.6
계			53	100.0

### 3. 연구의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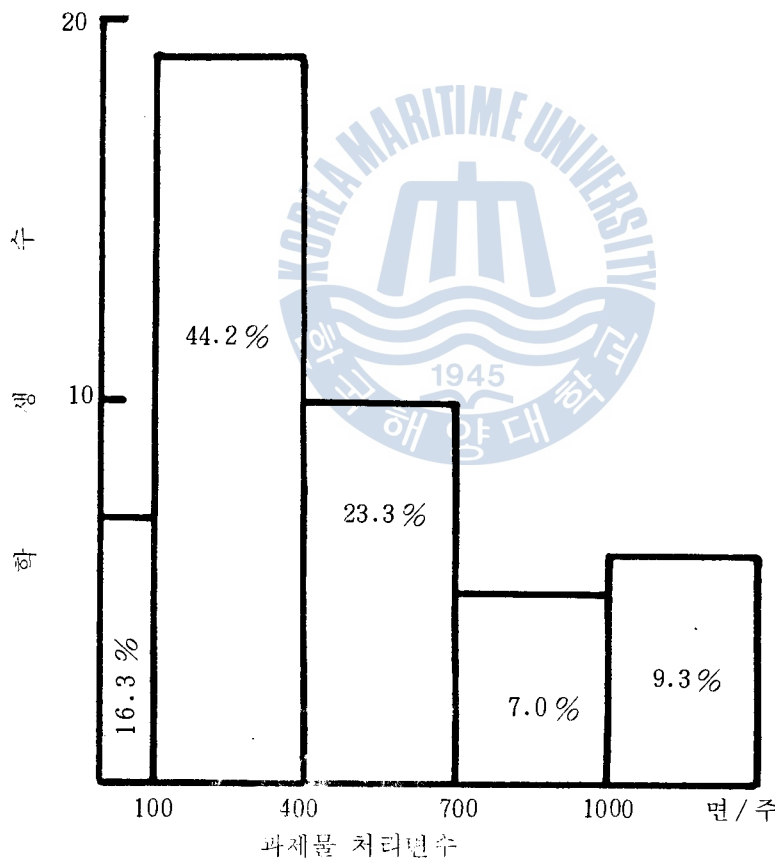
#### 3.1 제도의 운영실적

1986년 2 학기에는 T.A들을 해당학과에서 만 활용한 반면 1987년 1 학기에는 각교수에 게 전담된 T.A들이 그 교수가 강의한 다수학과의 과제물을 점검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 2 및 3에 양학기의 과제물실적을 나타내었는데 불행히도 동일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었다. 학생 1인당 매주 평균과제물 제출면수는 전공 과목에 있어서 1986년도 2 학기의 이공계열 및 사회계열에 각각 0.72 및 10.51면이었으나 1987년 1 학기에는 각각 3.33 및 6.17면으로 이공계열은 증가, 사회계열은 감소하여 총량에 있어서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1987년 1 학기에는 과제물량의 학과집중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몇몇 학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T.A의 과제물처리 업무량의 균등분배의 점을 조사해보기 위하여 그림 3에 과제물처리량에 따른 T.A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T.A의 83.7%가 100면 이상을 매주 처리하

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T.A들이 업무에 성실히 종사한 것을 알 수 있으나 100면 이하를 매주 처리한 T.A가 16.3%나 되는 점 또는 1000면 이상을 처리한 T.A가 9.3%나 되는 점을 보면 아직도 일부 T.A들은 너무 늦거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별히 업무량이 많은 T.A는 매주 5970면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T.A업무를 균등히 하여 과제물의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매학기 각교수별 T.A활용실적을 통계내어 다음 학기 T.A배정인원수에 반영하는 작업을 부단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3) 과제물처리량에 따른 T.A인원수 분포도(1987년 1학기)

(표 2) 과제물처리 조교를 활용한 과제물부과 실적(1986년 2학기, 3개월간)

총 과제물 면수
1인당 매주 평균 면수

학과	승인		이공계열	사회계열		이공·사회계열합계						
	항	해		회	계							
학과	732	724	126	89	119	68	400	134	129	62	325	725
교양과목	어문	3,775	2,290	4,815	3,312	14,192	2,152	3,116	1,552	6,870	21,062	
	수리	2,50	2,14	3,43	4,06	2,96	1,34	2,05	2,09	1,76	2,42	
	기타	2,485	925	1,949	703	6,062					6,062	
	기초	1,64	0,87	1,39	0,86	1,26	272	1,820	400	2,492	4,352	
	소계	751	288	781	40	1,860	0,17	1,18	0,54	0,64	0,50	
	소계	0,50	0,27	0,56	0,05	0,39	2,424	4,986	1,952	9,362	31,476	
건공과목	기초	7,011	3,503	7,545	4,055	22,114	1,51	3,22	2,62	2,40	3,62	
	기초	4,64	8,86	5,37	4,97	4,61	1,85	1,800	6,455	9,440	12,085	
	보조	346	1,967	332	0,41	2,645	0,74	1,16	8,68	2,42	1,39	
	보조	0,23	1,84	0,41	0,55	0,74	435	25,220	2,557	28,212	79,006	
	소계	205	429	160	794	0,17	0,27	16,29	3,44	7,23	9,08	
	소계	0,19	0,31	0,20	0,17	0,17	0,27	1,200	2,118	3,318	3,318	
총계	346	2,172	429	492	3,439	1,620	28,220	11,130	40,970	44,409		
	0,23	2,03	0,31	0,61	0,72	1,01	18,23	14,96	10,51	5,10		
총계	7,357	5,675	7,974	4,547	25,553	4,044	33,206	13,082	50,332	70,885		
총계	4,87	4,89	5,68	5,58	5,33	2,52	21,45	17,58	12,91	8,72		



(표 3) 과제물처리 조교를 활용한 과제물부와 실적(1987년 1학기, 2개월간)

총 과제물 면수
1인당 매주 평균 면수

학과 학제	승진		계열		이공		사회		이공·사회 계연합계							
	합	해	기	관	신박공학	전자통신	해양공학	소계								
과목	724		721		147		108		140	92	487	155	153	77	385	872
교양 과목	어문															
	수리															
전공 과목	기초	7,920	2,655	4,561	1,060		5,621	6,300	2,350		8,650	14,271				
	선문	1.37	0.46	3.89	1.23		1.44	5.08	1.92		2.81	2.04				
총 계	소계	7,950	6,747	1,739	1,306	2,543	6,006	1,050	7,460	116	8,626	14,632				
	보조	1.37	1.17	1.48	1.51	2.27	1.54	0.67	6.09	0.19	2.80	2.10				
총 계	소계	15,870	9,762	6,300	2,535	2,718	12,997	9,080	9,810	116	19,006	33,003				
	보조	2.74	1.69	5.37	2.94	2.43	3.33	7.15	8.01	0.19	6.17	4.58				

### 3. 2 학생의 면학태도

본 연구의 초점은 본 과제물제도로 인하여 학생들의 면학태도가 여하히 향상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하여 과제물제도에 관한 좋은 면학태도는 상당한 심리적, 시간적 부담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이 성실하게, 자력으로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들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표 4, 5, 6에 나타내었다. “과제물량으로 인하여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 (표 4)에 대하여 1987년 1학기의 조사결과 75.8%가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이 질문의 하위변수들에 학생들의 긍정정도에 따라 1-5의 스케일을 붙이어 그 평균 의식수준으로써 1986년 2학기와 1987년 1학기를 서로 비교하면 3.686으로부터 4.065로 상승하였음을 나타낸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무성의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표 5)에 대한 답변은 73.6%가 긍정이었으며 양학기간 평균의식수준을 비교해보면 3.738로부터 3.967로 상승하였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가”라는 질문 (표 6)에 대한 답변은 46.8%가 긍정이었으며 52.4%가 부정으로 나타났다.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 정도를 1-4로 스케일을 붙이어 양학기간 평균의식수준을 비교해보면 2.612로부터 2.440으로 하강하였다.

이처럼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년별 또는 계열별 교차분리 분석으로부터 타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림 4에는 이들 중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 정도는 표 6에서와 같이 1-4의 스케일로 하였고 “심리적, 시간적 부담감”, “과제물 부과회수의 적정성” 및 “과제물부과 시기의 적정성”에 긍정하는 정도는 변수를 재구성하여서 1-3의 스케일을 붙여 그 평균치로서 나타내었다.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 정도는 학년별 변수로부터 살펴보면 과제물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심리적, 시간적 부담감이 많은 학년일수록 낮으며 과제물부과 회수 및 부과시기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학년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횡축 및 종축의 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000이하로서 대단히 유의적인 것이었다. 또 이들보다는 미약하지만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살펴본 것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 정도는 과제물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하며 학문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년일수록, 과제물을 교수연구실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년일수

록, 과제물 채점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계열일수록 그리고 기한내에 제출된 과제물에 가독점수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계열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는 유의수준 0.0054 이하로서 대단히 유의적인 것이었다.

(표 4) 과제물량으로 인하여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33	7.2	33	4.3
2	조금 그렇지 않다.	41	9.0	46	6.0
3	보통이다.	74	16.2	106	13.8
4	조금 그렇다.	196	43.0	236	30.8
5	아주 그렇다.	112	24.6	345	45.0
	누락(무응답)			1	0.1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3.686		4.065	

(표 5) “학생들이 과제물을 무성의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35	7.7	52	6.8
2	조금 그렇지 않다	48	10.5	50	6.5
3	보통이다	58	12.7	99	12.9
4	조금 그렇다	174	38.2	236	30.8
5	아주 그렇다	140	30.7	328	42.8
	누락(무응답)	1	0.2	1	0.1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3.738		3.967	

(표 6) “학생들이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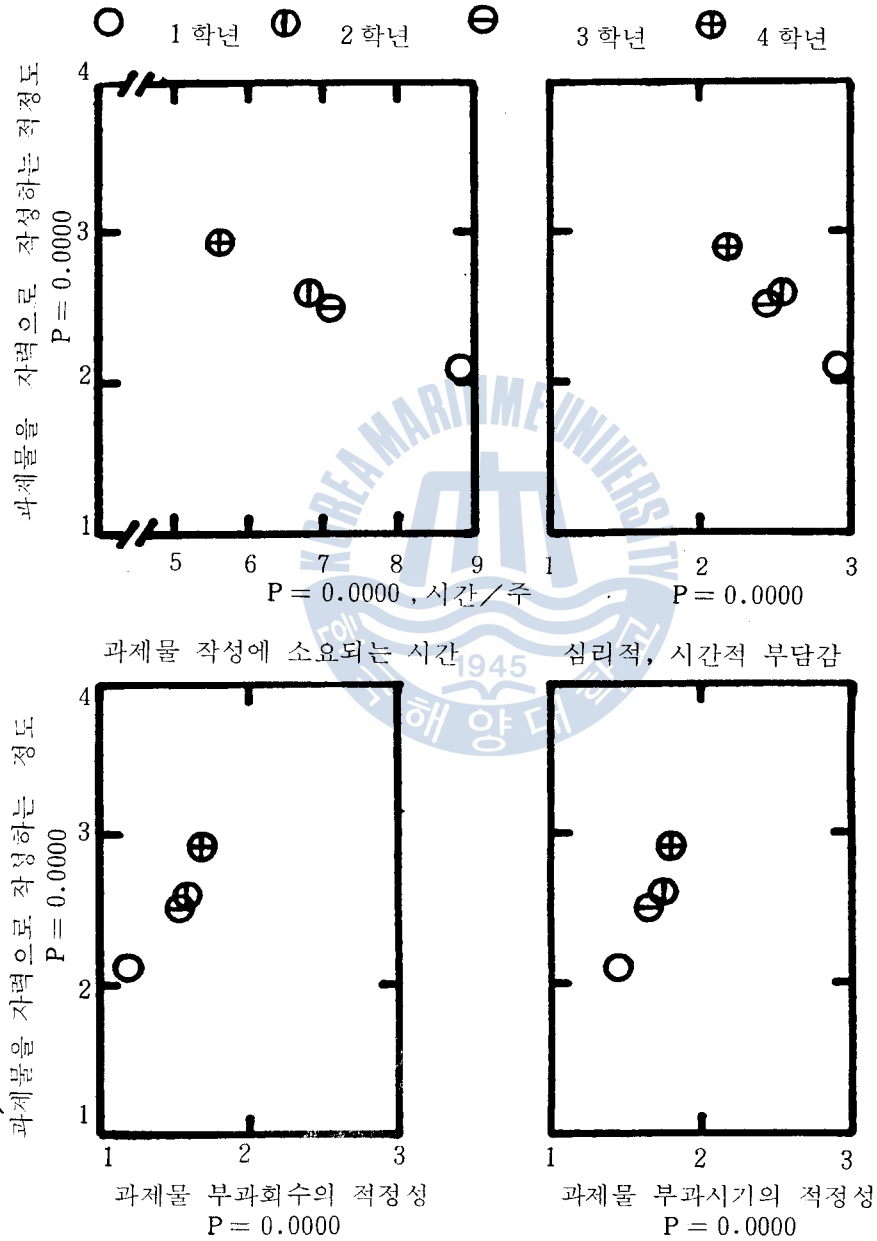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대부분을 베껴서 제출했다.	90	19.7	174	22.7
2	상당량은 베껴서 제출했다.	110	24.1	228	29.7
3	상당량은 자력으로 작성했다.	144	31.6	217	28.3
4	대부분 자력으로 작성했다	111	24.3	142	18.5
	누락(무응답)	1	0.2	6	0.8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2.612		2.440	

“과제물을 베껴서 제출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제물량이 과다하다”라는 답변에 52.0% “참고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답변에 23.2%가 응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1986년 2 학기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순위가 바뀌었으며 과제물량과다라는 답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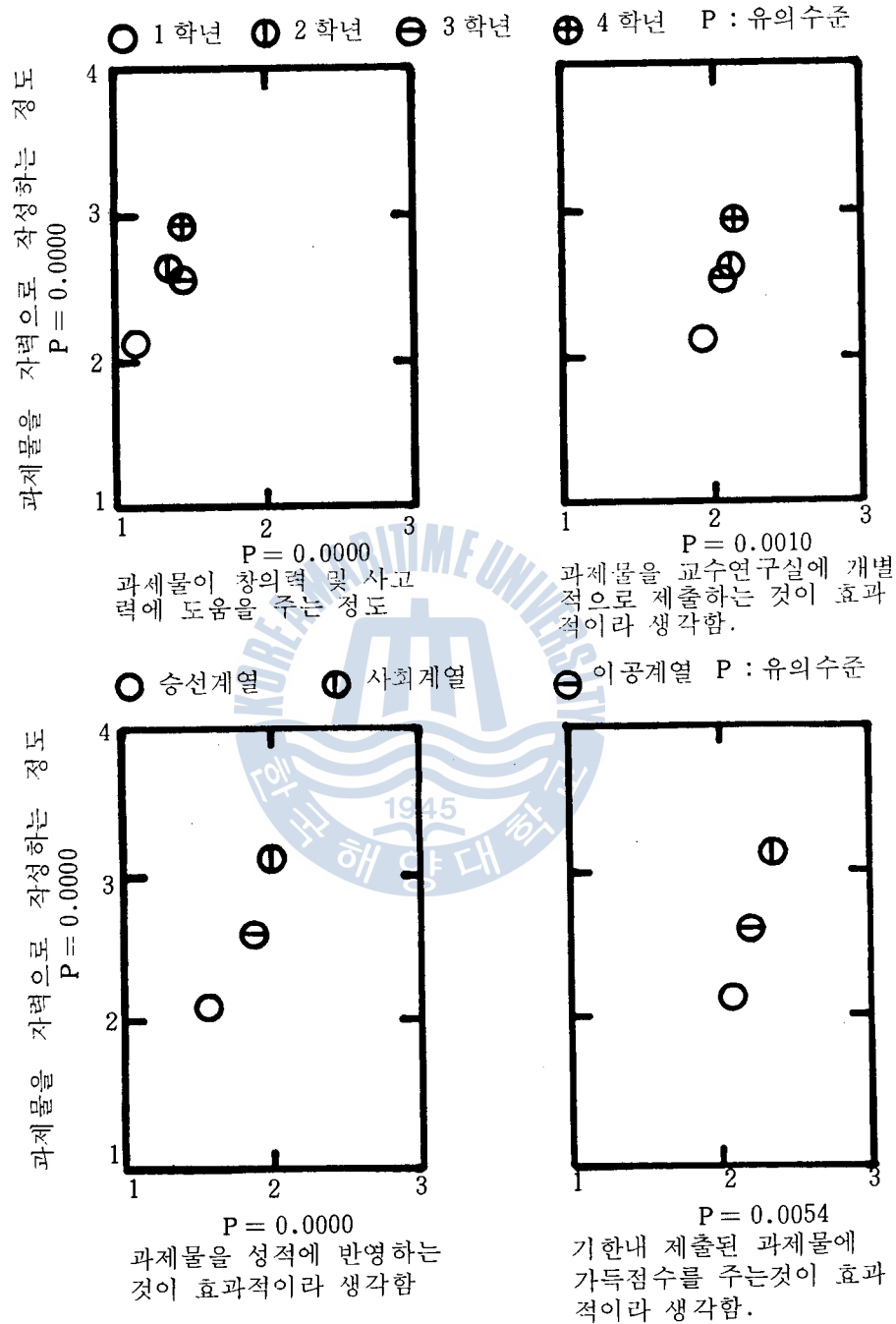
그림 6에는 학생들이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 정도에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술한 변수들의 1986년 2 학기와 1987년 1 학기, 양학기간 추이를 나타내었다. 1987년 1 학기의 모든 변수들은 1986년 2 학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과제물을 자력으로 작성하는 정도를 낮게 하는 방향으로 한결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난 양학기간의 면학태도 열화는 이러한 인자들의 복합적 결과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상기의 고찰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과제물제도를 시행해가면서 면학태도를 향상시키려면 과제물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도하지 않게 하고 심리적, 시간적 부담감을 신중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조절하며 과제물부과 회수와 부과시기 등은 학사일정들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편리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하며 학문에 도움을 주는 과제물을 많이 개발하며, 과제물을 학생대표가 거두어서 제출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과제물채점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며, 기한내에 제출된 과제물에 가독점수를 준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과제물 분량 및 좋은

과제물개발에 대하여는 金太晚교수<sup>1)</sup>의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론이 주장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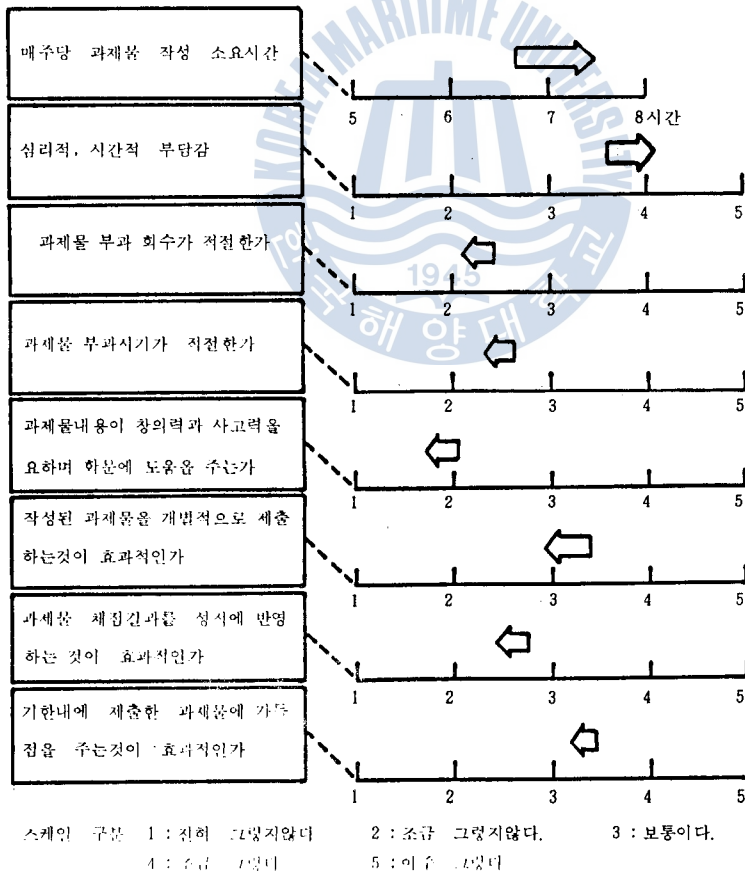
(그림 4) 학년별 차이로부터 조사한 상관관계



(그림 5) 학년별 또는 계열별 차이로부터 조사한 상관관계

(표 7) 과제물을 베껴서 제출하는 이유는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기숙사의 공동생활	50	11.0	93	12.1
과제물량이 과다하다	140	30.7	399	52.0
베껴서 제출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	41	9.0	61	8.0
채점결과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26	5.7	21	2.7
참고자료가 한정되어 있다.	187	41.0	178	23.2
누락(무응답)	12	2.6	15	2.0
계	456	100.0	767	100.0



(그림 6) 학생들의 면학태도에 상관관계 있는 제변수들의 86년 2 학기와 87년 1 학기의 추이

## 3. 3 과제물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호응도를 본 과제물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의식과 제도의 불완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하는 의욕의 정도로 대응시켜 보았다.

“과제물이 창의력, 사고력을 요하며 학문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 (표 8)에 대한 답변은 79.0%가 부정이었으며 스케일을 1-5로한 평균의식수준은 1986년 2 학기에 2.042, 1987년 1 학기에 1.734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교수가 내는 과제물의 내용에 상당히 불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나마 양학기를 걸쳐서 상당히 저하되었으므로 좋은 과제물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표 8) 과제물이 창의력, 사고력을 요하며 학문에 도움을 주는가

스케일	학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205	45.0	449	58.5
2	약간 그렇지 않다	201	22.1	157	20.5
3	보통이다.	89	19.5	91	11.9
4	약간 그렇다	45	9.9	56	7.3
5	아주 그렇다	15	3.3	14	1.8
	누락(무응답)	1	0.2	0	0.0
	계	456	100.0	767	100.0
	평	2.042		1.734	
	균				

“과제물 채점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표 9)에 대한 답변은 그 평균의식수준이 2.757로부터 2.442로 이 역시 상당히 저하하였다.

“과제물을 그룹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표 10)에 대한 답변은 그 평균의식수준이 3.021로서 중간정도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기 간 변화는 거의 없었다. “과제물을 개별적으로 교수연구실에 제출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표 11)에 대한 답변은 그 평균의식수준이 2.388로부터 2.952로 저하되었으며 이 역시 중간정도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과제물 채점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122	26.8	258	33.6
2	약간 그렇다	88	19.3	154	20.1
3	보통이다	84	18.4	166	21.6
4	약간 그렇다	103	22.6	131	17.1
5	아주 그렇다	59	12.9	56	7.3
	누락(무응답)	0	0.0	2	0.3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2.757		2.442	

(표 10) 과제물을 그룹별로 다르게 하여 부과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98	21.5	156	20.3
2	약간 그렇지 않다	71	15.6	105	13.7
3	보통이다	80	17.5	192	25.0
4	약간 그렇다	107	23.5	191	24.9
5	아주 그렇다	97	21.3	121	15.8
	누락(무응답)	3	0.7	2	0.3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3.075		3.021	

(표 11) 과제물을 개별적으로 교수연구실에 제출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79	17.3	197	25.7
2	약간 그렇지 않다	50	11.0	123	16.0
3	보통이다	84	18.4	136	17.7
4	약간 그렇다	101	22.1	140	18.3
5	아주 그렇다	142	31.1	170	22.2
	누락(무응답)	0	0.0	1	0.1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3.388		2.952	

“기한내에 제출된 과제물에 가득점수를 주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표 12)에 대한 답변은 그 평균의식수준이 3.444로부터 3.177로 저하되었으며 중간을 약간 넘는 정도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과제물을 침삭지도하여 반환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표 13)에 대한 답변은 75.1%가 동의함으로써 강한 요망사항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의 평균의식 수준 역시 4.351로부터 4.098로 저하하였다.

과제물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를 평가하는 위의 6 변수들을 총평균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면 3.176으로부터 2.904로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절에서 설명한 학생들의 면학태도열화 뿐 아니라 본질의 호응도 저하는 학교당국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결과이며 이들의 개선을 위한 시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표 13의 침삭지도 반환에 대한 강한 요망은 주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盧宗熙교수<sup>2)</sup>의 논단에서도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침삭지도와 피이드백이 뒤따라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논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침삭지도의 부분적 해결이라도 시도하려 한다면 T.A들에게는 베껴서 제출한 과제물을 가려내는 일만 집중적으로 부과하고 과제물 내용은 교수가 직접, 부분적 점검이라도 하여서 침삭을 가하여주는 노력을 투여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표 12) 기한내에 제출된 과제물에 가독점수를 주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64	14.0	166	21.6
2	약간 그렇지 않다	61	13.4	97	12.6
3	보통이다	82	18.0	125	16.3
4	약간 그렇다	105	23.0	193	25.2
5	아주 그렇다	143	31.4	186	24.3
	누락(무응답)	1	0.1	0	0.0
	계	456	100.0	767	100.0
	평 균	3.444		3.177	

(표 13) 과제물을 첨삭지도하여 반환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케일	학 생	'86년 2 학기		'87년 1 학기	
		계	%	계	%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2.9	61	8.0
2	약간 그렇지 않다	33	7.2	48	6.3
3	보통이다	37	8.1	81	10.6
4	약간 그렇다	71	15.6	141	18.4
5	아주 그렇다	302	66.2	435	56.7
	누락(무응답)	456	100.0	767	100.0
	평 균	4.351		4.098	

### 3. 4 과제물제도에 대한 교수들의 호응도

교수의 과제물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학기중 과제물처리에 배정된 T.A의 활용정도, T.A들의 성실성 및 능력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도 그리고 본 제도를 통하여 면학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의 정도로 대응시켜 보았다.

1987년 1 학기의 질문조사에서 “배정된 T.A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습니까”라는 질문 (표 14)에 대한 답변은 “아주 많이 활용하였다”에 17.0%, “상당히 활용하였다”에 24.5%가 답변하였으며 1-5의 스케일을 붙여 평균수준을 계산하면 3.264였다. 또 계열별 교차분리 분석결과를 표 14-2에 나타냈는데 답변을 조정하여 1-3의 스케일을 붙여 평균수준을 비교하면 교양과정학과가 2,833으로 가장 높고 사회계열이 2,333, 이공계열이 2,230으로 비교적 많이 활용한 반면 상선계열은 1,636으로 약간 못미치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表 14-1) 배정된 T.A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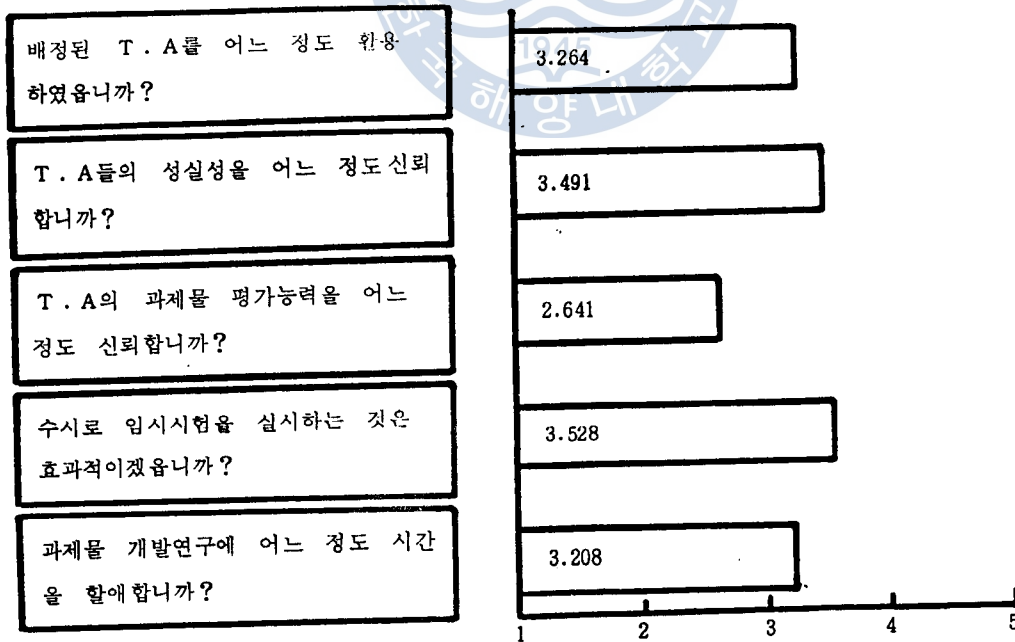
스케일	교수	'87년 1 학기	
		계	%
1	활용하지 않았다	2	3.8
2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13	24.5
3	보통이다	16	30.2
4	상당히 활용하였다	13	24.5
5	아주 많이 활용하였다	9	17.0
	계	53	100.0
평	균	3.264	

그림 7은 기타의 질문조사들을 포함하여 전체 교수들의 과제물제도에 대한 호응도의 측정에 상당하는 질문의 답변을 1-5의 스케일로 하여 평균수준으로 나타내본 것이다. T.A들의 과제물평가능력에 대한 신뢰를 제외하면 T.A를 활용한 정도, T.A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 수시시험의 효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과제물개발 노력이 모두 중간정도를 넘는 수준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총평균하면 3.226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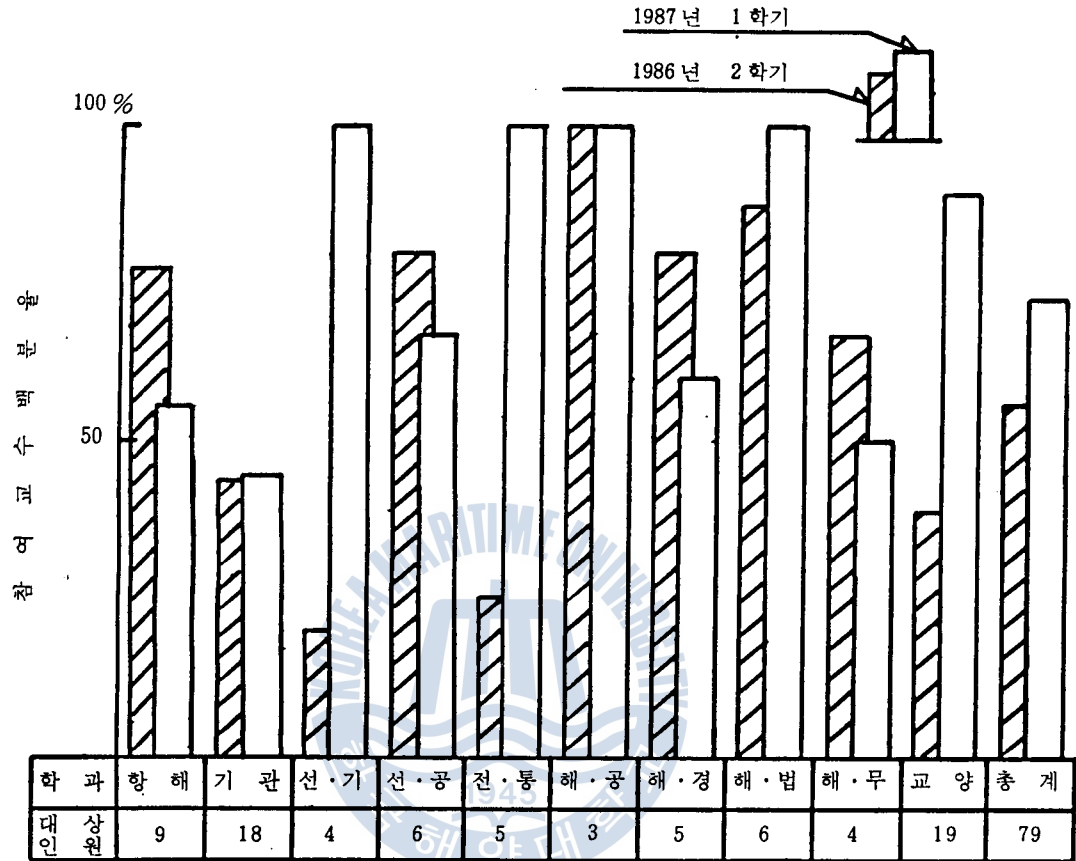
그림 8에는 1986년 2 학기와 1987년 1 학기의 과제물제도에 대한 교수참여율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를 나타내었는데 전학과 평균 참여율은 55.8%로부터 72.2%로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보아 참여율은 평준화된 쪽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잡한 형식의 T.A업무처리 방식보다는 배정된 T.A의 수시방문을 받아 과제물을 처리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도움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표 14-2) 배정된 T.A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습니까

교 수		1. 활용하지 않음	2. 보통	3. 활용 하였음	횡란합계	계열평균
상 선 계 열	계	12	6	4	22	1.636
	%	54.5	27.3	18.2	41.5	
이 공 계 열	계	2	6	5	13	2.230
	%	15.4	46.2	38.5	24.5	
사 회 계 열	계	1	2	3	6	2.333
	%	16.7	33.3	50.0	11.3	
교 양과 정 학 과	계	0	2	10	12	2.833
	%	0	16.7	83.3	22.6	
종 란 합 계	계	15	16	22	53	2.132
	%	28.3	30.2	41.5	100.0	



(그림 7) 과제물제도에 대한 교수호응도 질문조사



(그림 8) 과제물제도의 교수참여율 비교

#### 4. 결 론

우리나라의 현재 주어진 대학교육환경을 극복하고 과제물제도를 무리없이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개선하고 자주적인 학문연구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일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이의 해결방안으로 일방적으로 제도를 확정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촉구만 하는 것으로는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이 제도는 교수들이 학생지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T.A업무를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면학실태를 계속 관찰하여 교수들의 지도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총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2 학기에 걸쳐 시행된 과제물제도를 통하여 교수들의 참여율과 노력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응한 학생들의 면학태도와 호응도는 오히려 하향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몇가지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변화들에 대응한 이유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단순 조작하는 것만으로 일거에 면학태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과제물량을 극히 조금만 부과하면 베키서 제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무의미한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의 상관변수들의 조작에 따라 면학태도라는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들의 평균의식수준을 바이어스(bias)로 한 상관관계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제물제도에 의한 학생들의 면학태도는 과제물작성 소요시간 또는 심리적, 시간적 부담감의 다소라는 주변수(variable)에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변화하는 종속변수라 본다면 기타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조작변수(parameter)로 볼 수 있으며 이 조작변수들을 될 수 있는한 학생면학태도도 향상에 기여하는 쪽으로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평균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의 의식수준에서 면학태도가 과도히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제물의 분량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대학당국과 교수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이 학생 평균의식수준의 바이어스가 서서히 더욱 높은 위치에서 작용하게 되도록 아래에 열거한 상관변수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학생들이 이에 자연스럽게 적응되도록 참을성있게 노력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것은 즉,

- 1) 과제물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학생들의 능력에 맞도록 조절
- 2) 과제물부과 회수 및 시기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
- 3) 좋은 내용의 과제물을 개발
- 4) 작성한 과제물을 직접 개별적으로 교수연구실에 제출하게 하며 기한내에 제출된 과제물에 가독점을 부여
- 5) 과제물 채점결과를 성적에 반영
- 6) 가능한 범위내에서 과제물에 대한 침착지도로 요약된다.

덧붙여서 매학기의 각교수에 대한 전담 T.A배정시에 전학기의 활용실적을 조사하여 이에 대응한 인원수의 조절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金太晚, 卓用國, 먼학분위기 조성이 대학생에 투영된 결과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 교육논총 제 2 집, pp. 40~42.
- 2) 盧宗熙, 대학생의 학습량증대 방안, 대학교육 24호, p. 67.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총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2 학기에 걸쳐 시행된 과제물제도를 통하여 교수들의 참여율과 노력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응한 학생들의 면학태도와 호응도는 오히려 하향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몇가지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변화들에 대응한 이유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단순 조작하는 것만으로 일거에 면학태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과제물량을 극히 조금만 부과하면 베키어서 제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무의미한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의 상관변수들의 조작에 따라 면학태도라는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들의 평균의식수준을 바이어스(bias)로 한 상관관계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제물제도에 의한 학생들의 면학태도는 과제물작성 소요시간 또는 심리적, 시간적 부담감의 다소라는 주변수(variable)에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변화하는 종속변수라 본다면 기타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조작변수(parameter)로 볼 수 있으며 이 조작변수들을 될 수 있는한 학생면학태도도 향상에 기여하는 쪽으로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평균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의 의식수준에서 면학태도가 과도히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제물의 분량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대학당국과 교수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이 학생 평균의식수준의 바이어스가 서서히 더욱 높은 위치에서 작용하게 되도록 아래에 열거한 상관변수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학생들이 이에 자연스럽게 적응되도록 참을성있게 노력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것은 즉,

- 1) 과제물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학생들의 능력에 맞도록 조절
- 2) 과제물부과 회수 및 시기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
- 3) 좋은 내용의 과제물을 개발
- 4) 작성한 과제물을 직접 개별적으로 교수연구실에 제출하게 하며 기한내에 제출된 과제물에 가독점을 부여
- 5) 과제물 채점결과를 성적에 반영
- 6) 가능한 범위내에서 과제물에 대한 침착지도로 요약된다.

덧붙여서 매학기의 각교수에 대한 전담 T.A배정시에 전학기의 활용실적을 조사하여 이에 대응한 인원수의 조절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